

「青年」을 통해 본 하령회(夏令會)의 역사적, 기독교윤리적 의미*

- 1927년 제1회 하령회 강사들의 담론을 중심으로

이장형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객원교수)
안수강 (백석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립해야 할 내면적 신앙

1. 윤치호의 “宗教와 民族性”: 민족의 ‘의지적 속성’ 강화
2. 변영서의 “現代青年의 覺悟”: 그리스도의 교훈 실천
3. 김창준의 “基督敎의 無抵抗主義”: 초저항주의적(超抵抗主義的) 이해
4. 반복기의 “基督敎의 神觀”: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고난에 관한 담론

III. 실천적 외연(外延)에 관한 담론

1. 조만식의 “基督敎와 實生活”: 근검절약 실천과 경제책 연구의 과제
2. 양주삼의 “生活方式”: 의식주 선용의 원리들과 원칙들
3. 홍병선의 “農村事業”: 농민들의 신용문제

IV. 나가는 말: 기독교윤리적 함의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3.15>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0568). 주저자/교신저자: 이장형; 공동저자: 안수강

• ABSTRACT •

The Historical and Christian Ethical Implications of ‘Haryeonghoe’ as Seen in “The Young Man”

Visiting Professor, Lee, Jang-Hyung (Graduate School of Practical Theology)
Lecturer, Ahn, Su-Kang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thical implications by analyzing messages delivered at the Summer Conference in August of 1927. First, The fact that Christians actively implemented community training programs in the oppressive circumstance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holds historically significant meaning. Second, the arguments advanced by the lecturers at the Haryeonghoe need to be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Japanese oppression was intensifying in various area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The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revealed in journal exhibited the limitation of remaining confined to individual ethical progress and spiritual sanctification, failing to encompass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society and culture. Third, the faith community enabled Korean Christianity to consistently hold events such as *Haryeonghoe* and use them as opportunities for the cultivation of faith training, placing emphasis on community life and training even during the oppressive circumstances of the period of Japanese cultural policy from the 1920s to the 1930s.

Key words: “The Young Man”(Cheongnyeon), ‘Haryeonghoe’(Summer Conference), Christian Ethics, Interior Faith, Practical Life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1927년 8월 YMCA와 YWCA가 연합하여 개최한 제1회 하령회(夏令會, summer conference)에서 강사들이 강론한 메시지의 원문들을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그리고 윤리적 의미를 제시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발전을 추적하려면 부흥회뿐만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 기독교청년회가 주관한 하령회에 관해서도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YMCA와 YWCA가 1927년부터 연합하여 개최한 하령회에 관해서는 역사적 사료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YMCA 기관지 「青年」에 게재된 하령회의 메시지 원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입체화하여 기독교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적 활동과 감성적 활동, 그리고 이를 삶속에 외연하는 의지적 노력이 추구되어야 한다. 하령회는 인성의 내면을 다지는 신앙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외연(外延)함으로써 실천에 솔선했던 주목할 만한 교육행사였다. 해방 전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동인들로서 1907년 길선주가 주도한 평양의 대부흥운동, 1920년을 전후한 김익두의 신유부흥운동, 1930년대 초 이용도의 신비주의를 동반한 부흥운동 등 주로 거시적인 활동에 주목한다. 그러나 미시적인 방면에서 나름대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춘 영적 수련 활동들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청년 지도자 양성을 실천한 교육활동들 가운데 하령회 전통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특별히 주목할 점으로서 1920년대 중후반은 일제가 점차 문화정치에서 군국주의로 국책을 선회해가는 시기였고, 1925년 조선신궁(朝鮮神宮) 준공,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조짐들, 이동휘와 김규식 등 사회주의자들의 활동, 1925년 한양청년동맹(漢陽靑年同盟)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기독교와 공산주의와의 대립, 소작인들로 전략해가

는 국민들의 피폐한 생활상, 선교사들에 대한 반발과 토착화된 교회 추구, 종파운동, 교회의 현실 도피, 1929년 프린스턴신학교의 변질과 자유주의 사상 발흥 등 시국적, 사상적, 삶의 질 등) 모든 면에서 어려운 시기였다. 는 점에서 하령회 개최는 역사적으로 의미심장한 가치를 갖는다.

1927년 이전에도 하령회가 개최되었으나 1927년에는 YMCA 제16회 학생하령회와 YWCA 제6회 학생하령회가 연합하여 제1회 ‘조선 남녀학생 기독교청년회 연합회 하령회’를 열었다. 이 하령회는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 60여 학교 남녀 121명이 서울 성북동에 소재한 민영찬의 별장에 모여 “압호로(앞으로) 가자”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내면적 신앙과 이를 외연한 실천적 삶을 주요 주제로 채택하여 교육행사를 가졌다. 모임에 참여한 단체는 남녀학생청년회 28단체, 남녀청년회 14단체로 도합 42단체였으며 강사들은 15명이었다.²⁾ 이후 1928년 제2회 하령회는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보아라”라는 주제로 서울 우이동에서 개최되었으며 109명이 모였다. 1929년 제3회 하령회에서 조만식은 “朝鮮基督教 學生의 態度와 使命”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1930년과 1931년에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졌으나 상세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³⁾ 청년단체들은 1920년대에 지속적으로 하령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확장하고 사업을 전개했지만 1930년대에는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정책에 의해 활동이 위축되어 제대로 모임을 갖지 못했다.⁴⁾ 1927년 8월 제1회 하령회를 마친 후 다음 달 9월(제7권 제7호)에 발행된 하령회 특집호 「青年」에 7편의

1) Cf.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376, 378, 381, 385-387, 404-408, 479-480;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386-392, 447-457, 494-495; 이광수, “今日朝鮮耶蘇教會의 欠點,” 『青春』 11(1917), 76-83.

2) 일기자(一記者), “權頭語,” 『青年』 7/7(1927), 1.

3)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 운동사』 (서울: 흥성사, 2017), 359.

4)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272.

선별된 글들이 게재되었는데 하령회에서 선포된 메시지들 가운데 지금까지 유일한 자료로 전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史的)으로 회소성의 가치가 있다. 이 특집호에는 한국인 강사 5인, 선교사 강사 2인의 글이 선정되었는데 윤치호의 “宗教와 民族性”, 조만식의 “基督教와 實生活”, 변영서(邊永瑞, Bliss W. Billings)의 “現代青年의 覺悟”, 양주삼의 “生活方式”, 김창준의 “基督教의 無抵抗主義”, 반복기(潘福奇, J. D. Van Buskirk)의 “基督教의 神觀”, 홍병선의 “農村事業” 등 7편이 순차적으로 수록되어 있다.⁵⁾

「青年」은 기독교청년회 기관지로서 1921년 3월에 창간되어 1940년 12월까지 20년 간 보급되었으며 기독교신앙으로 민족계몽과 청년운동을 선도하는 사명을 담당했다. 발행인은 브로크만(Fletcher S. Brockman), 편집자는 홍병선이고, 경성 소재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청년잡지사에서 출간했다. “직업훈련과 사회진출, 인권, 청년활동, 신학사상, 사회 및 정치사안, 윤리·철학 문제, 빈곤과 경제문제, 교육관, 여성운동, 남녀교제와 가정, 민족문제, 문학평론 등”⁶⁾ 다방면의 삶의 영역에서 포괄성 있게 담론들을 게재함으로써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문명향상과 계몽운동을 지향했다. 김필수는 창간호 서문에서 “時代의 變遷에 推移 해야 基督教主義를 民族의 文明 向上的 宣導 하기 爲 함의 所以로다.”⁷⁾라고 밝혀 기독교가치관에 의한 민족의 문명화에 솔선할 것을 천명했다.

해방 전 기독교청년회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장규식은 “1920~30년대 YMCA 학생운동의 전개와 일상 활동”⁸⁾에서 학생부의 설치와 사회개조 논

5) 윤치호, “宗教와 民族性,” 「青年」 7/7(1927), 2-5; 조만식, “基督教와 實生活,” 「青年」 7/7(1927), 6-10; 변영서, “現代青年의 覺悟,” 「青年」 7/7(1927), 11-14; 양주삼, “生活方式,” 「青年」 7/7(1927), 15-19; 김창준, “基督教의 無抵抗主義,” 「青年」 7/7(1927), 20-25; 반복기, “基督教의 神觀,” 「青年」 7/7(1927), 26-30; 홍병선, “農村事業,” 「青年」 7/7(1927), 31-34.

6) 이 주체들은 본 연구자가 「青年」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것임.

7) 김필수, “「青年」 發行의 首辭,” 「青年」 창간호(1921), 1.

8) 장규식, “1920~30년대 YMCA 학생운동의 전개와 일상 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의, 사업 추진과 연합하령회 개최, 학생운동의 조직체계와 일상 활동 등을 논했다. 키노시타 타카오(Kinoshita Takao)는 “한국 YMCA와 105인 사건-윤치호와 1911년 제2회 학생 하령회를 중심으로.”⁹⁾에서 한일합방 직후 윤치호가 주도하여 개최한 초기 ‘썸머 캠프’(summer camp)의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안수강은 “일제강점기 YMCA의 노선과 현재적 함의 고찰: 기관지 「靑年」(1921-1940)을 중심으로”¹⁰⁾에서 기독교청년회의 진로와 과업을, “해방 이전과 현 YMCA의 기독교 활동 비교”¹¹⁾에서는 해방 전후 기독교청년회의 신앙과 행사들을 비교분석했다. 이성일은 『일제하 한국기독교내의 사회운동연구: 1920-30년대 YMCA, YWCA, 절제운동을 중심으로』¹²⁾에서 문화정치 시기 절제운동의 흐름을 분석했다. 이장형과 안수강은 “「靑年」(1921-1940)에 나타난 여성관과 기독교윤리적 의미”¹³⁾에서 여권과 양성평등을 고찰했으며, “「靑年」(1921-1940)에 나타난 반전(反戰)-평화비상시국 담론 및 기독교윤리적 해석”¹⁴⁾에서는 세계평화에 대한 성경적 담론을 살폈다.

이상, 선행연구는 「靑年」의 발행 분량과 공헌도에 비해 연구실적물이 빈약하며 지금까지 하령회의 메시지 원문들을 분석하여 현재적 함의를

27(2007), 71-105.

- 9) 키노시타 타카오, “한국 YMCA와 105인 사건-윤치호와 1911년 제2회 학생 하령회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9(2009), 180-212.
- 10) 안수강, “해방 이전과 현 YMCA의 기독교 활동 비교,” 『역사신학논총』 30(2017), 144-180.
- 11) 안수강, “일제강점기 YMCA의 노선과 현재적 함의 고찰: 기관지 「靑年」(1921-1940)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9(2022), 631-667.
- 12) 이성일, 『일제하 한국기독교내의 사회운동연구: 1920-30년대 YMCA, YWCA, 절제운동을 중심으로』(부천: 서울신학대학교, 1993), 1-70.
- 13) 이장형, 안수강, “「靑年」(1921-1940)에 나타난 여성관과 기독교윤리적 의미,” 『기독교사회윤리』 57(2023), 421-450.
- 14) 이장형, 안수강, “「靑年」(1921-1940)에 나타난 반전(反戰)-평화비상시국 담론 및 기독교윤리적 해석,” 『기독교사회윤리』 59(2024), 399-428.

제시한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한, 「青年」에 수록된 하령회의 메시지 원문들을 고찰함으로써 이 행사에 관한 역사적, 윤리적 후속연구의 기초를 다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青年」을 통해 본 하령회(夏令會)의 역사적, 기독교윤리적 의미”라는 제하에 제2장에서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립해야 할 내면적 신앙’을, 제3장에서는 ‘실천적 외연(外延)에 관한 담론’을 분석할 것이며, 제4장에서는 분석한 내용에 기초하여 ‘기독교윤리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II.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립해야 할 내면적 신앙

1927년 9월에 발행된 「青年」은 제1회 하령회 특집호로 마련되었으며, 이후 1940년 12월 중간호에 이르기까지 하령회 특집호는 더 이상 발간되지 않았다. 이 하령회에서는 총 15명의 강사들이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 중 7편이 「青年」에 게재되었다. 7편에 나타난 논지들을 분석하면 내용상 전체 구도는 양면적 구조를 보여준다. 그 한 면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립해야 할 내면적 신앙’이며 다른 한 면은 ‘실천적 외연에 관한 담론’으로 편성되어 있다. 7편의 글들 중 윤치호의 “宗教와 民族性”, 변영서의 “現代青年의 覺悟”, 김창준의 “基督教의 無抵抗主義”, 반복기의 “基督教의 神觀” 등 4편에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내면적 신앙의 본질을 담았다.

1. 윤치호의 “宗教와 民族性”: 민족의 ‘의지적 속성’ 강화

윤치호는 “宗教와 民族性”을 발표하여 종교와 민족성은 분리하여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불가분리의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 파악해야 하며 특별

히 민족성을 고양하기 위해 종교의 유익성을 체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족성의 ‘성’(性)은 생득적인 천성(天性)을 의미하며 ‘한 공통성을 함유(含有)한 개성(個性)의 천성’이라는 점에서 민족성 그 자체는 결코 종교에 의해 폐기될 수 없는 항존적(恒存的)인 속성을 갖는다고 했다.¹⁵⁾ 그는 종교와 민족성의 상관관계를 ‘기독교와 민족성의 관계’, ‘기독교를 통한 의지적 요소 강화’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논증을 전개했다.

1) 기독교와 민족성의 관계

윤치호는 민족성은 하늘이 부여한 천성적이며 고유한 속성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변역(變易)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민족성의 ‘성’(性)을 ‘천성’(天性)과 동일시켰으며 이를 ‘불변의 근성’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 전래된 신흥종교인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한민족이 지닌 고유한 민족성을 한층 강화해주는 동인이 될 수 있으며 민족성을 견고하게 확립해주는 기능을 가졌다는 점에서 유용한 종교라고 했다. 그는 이 논지를 통해 한국에 전래되어 40여년에 걸쳐 뿌리내린 기독교가 한민족의 천성적 민족성을 강화하고 진작함으로써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종교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했다.

宗教가 一民族 簡人의 天性을 지을 수 있는가 업는가 함이다. 이에 對하여는 別한 論據를 기다릴 것 업시 宗教는 民族의 習性을 업시하기도 하고 새로 創作할 수도 있다. 그러나 本有한 天性은 宗教가 變하게 할 수 업나니 (중략) 宗教가 우리 人性에 善하고 惡한 習性을 잘 變換하게 할 수 잇고 다만 民族性 그 自體의 根性만은 宗教의 힘으로도 變易함을 不得한다. (중략) 각 宗族의 特性이 基督教로 因하여 더욱히 強하여졌다. 그러면 우리는 宗教가 民族性과

15) 윤치호, “宗教와 民族性,” 2.

그러한 關係 卽 어느 民族性을 特히 助長시켜주는 事實을 잘 利用하여야 할 것이다.¹⁶⁾

윤치호는 한국 최초의 설교집 『百牧講演』(1921)에 발표한 설교문 “基督은 誰也노(그리스도는 누구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성을 논증할 때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선천적 종교심(宗教心)에 대해 논증했다. 그는 이를 논거로 삼아 기독교와 민족성의 관계를 탐색할 만한 단서를 제시했다. 가령, 위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자식이 갈급한 심정으로 어머니를 찾고, 빈궁한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는 천부적 천성을 지녔듯이 종교심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각인된 본능적인 속성이라고 했다. “大抵 人의 苦痛함이 甚호 則 母를 부르고 人의 窮함이 極호 則 天을 부름은 滿天下 人類의 同性이올시다. 兒孩가 (중략) 突然히 犬의 吠음을 當호거나 怪異호 音響을 들으면 卽時 母親을 思호고 나아가 그 것해서 安慰함을 받은 후에 비로서 放心호며 其 母되는 이도 兒孩의 一時 不悅함을 잊었음을 연구자 주 介意호 餘暇가 업시 此를 安慰호기에 盡力호느니 人類가 하나님께 對함이 此와 小毫도 다름이 업습니다.”¹⁷⁾ 이로써 윤치호는 한민족이 기독교에 귀의하여 일체화된 신앙을 고백한다면 이 고백을 통해 한결 한민족의 천성이 고양되고 민족성이 고결하게 승화될 수 있다고 확신했으며 기독교신앙과 한민족의 민족성이 한 지평 위에서 유기적으로 결속되기를 소망했다.

2) 기독교를 통한 민족의 의지적 요소 강화

일반적으로 인격을 논할 때 인격을 구성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지성

16) 위의 글.

17) 윤치호, “基督은 誰也노,” 양익환 편, 『百牧講演』(京城: 博文書館, 1921), 162.

(intelligence), 감정(emotion), 의지(will) 등 삼요소를 제시한다. 즉 지성의(知情意)는 인격의 중핵을 형성하는 필연적인 요소들이다.¹⁸⁾ 윤치호는 한민족이 예로부터 인의, 충의, 온유함, 겸손, 동정심 등 지적이며 정적인 요소들은 천성적으로 강하지만 이에 비해 결단하고 실천하는 비장한 의지의 요소가 빈약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한민족이 지닌 가장 큰 약점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가 한민족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줌으로써 전인적 인간상을 실현하게 해주는 동인이 되어주기를 열망했다. 그는 기독교가 속성상 강한 의지의 종교이기에 한민족이 기독교 정신을 수용한다면 약점인 의지력을 고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민족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해 지성, 감정, 의지의 모든 요소들이 통일성을 이루고 이로써 전인적 인간상을 구현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했다.

특히 民族性에 對한 宗教의 關係가 如何한가? 우리 民族의 特性은 感情的이니 예수敎會에서 가라치는 사랑이라는 道는 우리는 發서부터(벌써부터)-연구자 주 몇 千年을 밋어 내려온 道이다. 卽 仁義, 忠孝, 溫柔, 謙遜 云云은 우리 의 本性으로부터 敎理에 배여오앗대(배워왔다)-연구자 주. (중략) 故로 우리 民族性 中에 同情心이 만흔 것은 곧 사랑의 感情的 表示이니 이는 우리 民族이 歷史 的으로 가지고 온 特性이다. (중략) 感情 中에서 오래 支配되야온 우리는 이제 우리 的 弱點을 바로 理解하야 예수敎에서 강한 意志力만을 取하야 우리 的 性品을 잘 陶冶 調和식히하야 이 날의 地位를 맞꿀 수바꿀 수-연구자 주 잇을 것이다.¹⁹⁾

윤치호는 한민족이 강화해야 할 의지적 요소와 관련하여 가장 긴요한 덕목은 신의와 정직이라고 했으며 의지력에 대해서는 정직을 추구하는

18) 정영희, “인격교육의 향성모형,” 『인격교육』 8/3(2014), 12.

19) 윤치호, “宗教와 民族性,” 3-4.

인격적 민족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⁰⁾ 그는 종교와 신덕(信德)의 상호 관련성을 언급한 대목에서 민족성과 종교는 결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피차 신덕과 신용을 갖추려는 노력을 경주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했다. “우리는 압흐르앞으로-연구자 주 民族性和 宗教 兩者를 對立하여 노코 取할 態度라기보다 맞당히 배오고배우고-연구자 주 가져야 할 信德을 잘 陶冶함으로 차라리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말을 듯드라도 信用 잇는 사람이라는 말을 듯게 되어야 한다.”²¹⁾ 윤치호는 “宗教와 民族性”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단에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 진정한 충성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인은 자민족(自民族)의 장점들과 단점들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하고, 약점들에 대해서는 기독교신앙으로 개선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의지의 고귀한 덕목인 신용을 갖추는 인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리는 自進하여 우리 民族의 長短을 삶히고살피고-연구자 주 우리와 關係되는 宗教의 힘을 바로 利用하여 正當한 改善을 힘써야 할 것이다. 예수의 教訓 中에 「적은 일에 忠誠하라」는 말삼을 잘 記憶하여 意志의 德 卽 信用의 人이 되어야 한다.”²²⁾

2. 변영서의 “現代青年의 覺悟”: 그리스도의 교훈 실천

변영서는 “現代青年의 覺悟”를 통해 약소국가 청년들이 각기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신세계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으로 믿어 평화주의와 세계형제주의를 고대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20) 위의 글, 5.

21) 위의 글.

22) 위의 글.

실패로 귀결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청년들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구태의연한 사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목을 가졌고 진리를 탐색하는 열정적인 포부를 지녔다며 이들이 각성하여 한국의 암담한 현실을 개혁하는 첨병들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²³⁾ 그는 청년들의 각오와 결단을 촉구하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들로서 ‘유물주의(唯物主義)와 정신운동의 싸움’, ‘영웅의 시기를 맞은 한국청년들’,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는 청년일꾼들’이라는 세 가지의 하위주제들을 설정하여 청년들이 한국의 현실을 극복함으로써 신세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논지를 펼쳤다.

1) 유물주의와 정신운동의 싸움

변영서는 점차 유물주의가 세상에 뿌리를 내려 강자(强者)로 부상하면서 약소민족은 정의를 상실하고 유물주의에 의한 강자 전횡(專橫)이 자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²⁴⁾ 그는 유물주의는 물질세계로, 영적주의(靈的主義)는 정신세계로 규정하여 양자를 극단적인 대립관계로 상치(相馳)시켰다. 그는 유물주의는 궁극적으로 황금만능의 세계관을 추구하지만 영적주의는 풍요한 정신세계와 인격을 보호하는 새로운 차원의 지평을 열어 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에 의하면 유물주의와 영적주의는 ‘물질 vs. 정신’, ‘황금만능 vs. 정신적 풍요’, ‘소유재산 보호 vs. 인격 보호’ 등의 모양새로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이 부르지즘‘영적운동’-연구자 주는 唯物主義를 反抗하고 精神的 活動을 是認함이다. 이로부터 世界 各 段階 사이로는 情神, 物質 두 面의 싸움이 숨이 들어 들게(싸움에 스며들게-연구자 주) 되었다. 唯物主義의 目的은 單純하다고 볼 수 있스니 卽 黃金萬能主義이다. 그러나 靈的主義는 그것만을 否認하고 精神的

23) 변영서, “現代青年의 覺悟,” 11.

24) 위의 글.

豊富한 生活을 營作하라고 함이다. 現行 法律은 所有 資産을 保護하지마는 靈的 運動의 結果는 마침내 人格을 保護하는 法律을 制定하도록 發達될 것이다. 卽 精神的으로 아모 不平이 업는 豊盛한 生活을 完全히 누리는 世界를 만들고 야 말겠다는 말이다.²⁵⁾

변영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라면 탁월한 영성으로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고 이타적 분배를 실천하여 풍족한 삶을 보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영적주의는 황금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유물주의에 저항해야 하며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에 임함으로써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²⁶⁾ 공산주의가 국내에 침투한 시기는 1920년경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성을 갖춘 사상체계로 의식화되고 문제될 만한 적극성을 보인 것은 1922년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가 소비에트(Soviet) 노동정부의 붉은 군대에 의해 점령된 이후였다. 1925년 일제 동경정부가 소련을 승인한 후에는 만주, 시베리아 및 일본에 거주하던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속속 국내에 잠입하여 반기독교운동을 획책하여 그 세력이 절정에 이르렀다.²⁷⁾ 1925년 기독교를 적대시한 한양청년동맹이 제2회 전조선주일학교대회 행사를 방해한 사건은 1920년대 중반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회자된다.²⁸⁾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한 보수주의 신학자로는 박형룡을 들 수 있다. 그는 「神學指南」을 통해 마르크스 종교론과 사회주의자들의 무신론을 비판했으며 시급한 대책으로서 변증신학의 필요성을 피력했다.²⁹⁾ 변영서는 당시 이러한 사상적 추이를 간파했을 것이

25) 위의 글, 12.

26) 위의 글.

27) 민경배, 『韓國基督教 社會運動史』(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207.

28) 김인수, “한국교회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와의 관계: 1920~30년대의 공산주의 교회 박해를 중심으로,” 『교회와 신학』 27(1995), 71-72;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381.

며 영적주의를 활성화하여 유물주의를 혁파하는 일이 기독교가 숭선해야 할 시대적 과업이라고 보았다.

2) 영웅의 시기를 맞은 한국청년들

변영서는 1920년대 들어 한국이 위기상황에 직면해있고, 한국교회 또한 매우 심각한 형편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한국교회를 한 지평 위에 일체화하여 운동공동체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장차 한국의 운명을 관가름할 열쇄는 한국청년들이 쥐고 있다고 보았다. 즉 한국의 미래사는 한국교회에 달려 있고, 그 역사의 주역들로서 한국 기독교청년들이 선봉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역설적으로 난세(亂世)에 영웅이 배출되듯이 한국청년들은 1920년대에 ‘영웅시기(英雄時期)’라는 카이로스(*Kairos*)의 황금기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³⁰⁾

변영서는 외국에서 선진문물을 체험한 청년들이 일신의 영달을 포기하고 조국에 귀환하여 난국을 타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한국청년들이 땅에 떨어지는 한 톨의 밀알이 되어 희생함으로써 모국을 살리는 과업에 투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가령, 미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하던 어느 중국인 학자가 귀국하여 자국인의 문맹을 타파하고 혁혁한 공헌을 남겼던 사례를 들어 한국청년들이 이를 귀감으로 삼아 선구자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밀알 한 알이 쟁에 찌려져 썩으면 百倍의 秋收가 있다는 이情神을 배와야 배와야 연구자 주 한다. (중략) 中國 어떤 學者가 米國에 일 大學에서 演說하는 中에 어찌한 感動이 잇서 中國으로 도라와 中國人의 文盲을 打破함에 相當한 貢獻이 잇섯다 한다. 卽 實地로 일함에서도 모든 問題가 可能하다.”³¹⁾ 그는 한국의 위기상황에 절망해서는 안 되며 난국을

29) 박형룡, “次代에 宗教는 消滅될가?,” 『神學指南』 10/3(1928), 5; 박형룡, “無神論의 活動과 基督教의 對策,” 『神學指南』 12/3(1930), 12-18.

30) 변영서, “現代青年의 覺悟,” 12.

타개할 수 있는 영적 동인은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심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청년들의 신앙심이 견실하게 하나로 응집되어 총화(總和)를 이룰 때 집단화된 영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로써 한국이 안고 있는 과도기의 슬한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³²⁾

3)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는 청년일꾼들

변영서는 한국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에 감격할 때 한국을 구원할 진정한 일꾼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나의 믿음[믿음-연구자 주]과 經驗과 온 感情이 여러 方面으로 아모리 研究하고 探索할지라도 그러한 이[구주 그리스도-연구자 주]를 다시 만나지 못한 까닭”³³⁾이라고 하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큰 구주는 없다고 시인했다. 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격적 감화, 무한한 사랑, 사해동포애(四海同胞愛), 그리고 공평한 세상을 지향한 진리관(眞理觀)에 뿌리를 둔다.³⁴⁾

그는 한국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을 통해 각성하고 성찰해야 할 교훈들로서 첫째,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연합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 둘째, 현세와 내세를 단절하지 않고 일맥선상에서 관철하는 혜안(慧眼), 셋째,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속죄의 도(道)를 강조했다.

오늘 青年들다려 예수를 배움에서[배움에서-연구자 주] 所望이 있다고 함은 그의 人格과 教訓에 感泣됨이 잇는 까닭이다. 米國人들은 個性으로 極히 發達

31) 위의 글, 13.

32) 위의 글, 12-13.

33) 위의 글, 14.

34) 위의 글.

되었으나 聯合力이 不足하다. 그러나 예수도 個性發達을 力說하면서도 聯合의 情神을 가라앉히며 現世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來世까지를 가라켜주었다. 이에서 예수는 참으로 그리스도시오 完滿한 聖者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사람에게 贖罪하는 道를 가라앉혔다. 그럼으로 사람이 그의 教訓 압해 설 새는 모든 罪를 스스로 깨닫게만 될 뿐 아니라 스스로 이길 힘까지도 얻게 된다.³⁵⁾

변영서는 한국청년들이 이 세 가지의 의미심장한 교훈들을 체득할 때 난세에 처한 한국을 구원하여 신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며, 만사를 형통한 길로 선도하는 신앙의 역군들로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3. 김창준의 “基督敎의 無抵抗主義”: 초저항주의적(超抵抗主義的) 이해

김창준은 “基督敎의 無抵抗主義”에서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술한 침략과 만행을 경험한 불행한 역사를 안고 있는 민족이지만 변함 없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선한 민족성을 영원한 평화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비추어 일맥 선상에서 조명하고자 했다. 그는 1919년 서울 중앙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민족대표 33으로 날인하고 만세시위를 주도하여 2년 반 동안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했다.³⁶⁾ 그는 삼일독립운동을 이끌면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전개하여 무저항주의의 진면목을 실천했다. 그는 “基督敎의 無抵抗主義”에서 두 방면의 굵직한 논지들을 전개했다. 하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의 민족성’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모범: 무저항주의가 아닌 초저항주의’이다.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이

35) 위의 글, 13-14.

36) 김홍수, “김창준의 생애와 신학,”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사회주의』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2), 211-213.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신앙으로 승화된 평화를 실천할 것을 기원했다.

1)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의 민족성

김창준은 한민족이 역사적으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질곡을 체험하며 고난을 당했지만 천성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선한 민족이라고 했다. 그리고 당대의 청년들 또한 전쟁을 일삼는 민족, 혹은 총포와 무기를 제작하여 살육을 일삼는 호전적인 구미인(歐米人)들과는 달리 전쟁을 반대하는 심성을 지녔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비단 한민족의 평안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평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평화와 반전(反戰)을 주제로 심층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우리 朝鮮青年은 今日 科學問名의 頭臺에 선 歐米人처럼 銃砲를 다도아[다투어] 연구자 ڑ ㅁㅁ드러 殺戮을 是事하야 ㅅㅅ호기를 조화하닌[좋아하는] 연구자 ڑ 民族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古來로 平和를 사랑하고 조화하는 民族인 ㅅㅅ닭에 平和世界를 力作함애 勸當할 素性을 가지고 있다. 故로 自己月南 李商在-연구자 ڑ는 큰 希望을 갖게 되노라 하얏다. 아닌게 아니라 우리의 歷史的 背景이 戰爭보다도 平和를 더 조화하던 民族들임은 先生[李商在-연구자 ڑ의 이한 말삼으로 일일히 證明되거니와 이만한 素性을 가진 우리들로서 四圍에 殺戮이 ㅅㅅ다할 만큼 不平한 이 世上에서 本 問題를 討議하게 됨은 얼마나 必要하다는 興味를 가지고 對하게 된다.³⁷⁾

김창준은 이미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간 지속된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역사와 약소국들이 배제된 강대국 일변도의 파리강화회의를 지켜보았으며 이러한 생생한 경험을 통해 성경적 무저항주의와 평화, 그리고 반전론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동시대 길선주는 『宗教界諸名士講演

37) 김창준, “基督敎의 無抵抗主義,” 20.

集』(1922)에 게재된 “平和의 曙”에서 식민치하의 한민족으로서 인지상정의 공감대를 표출했다. 그는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진행된 베르사유조약, 생제르맹조약, 뇌이조약, 트리아농조약, 세브르조약 등 전승국 중심의 강화회의를 지켜보면서 힘의 균형이 갖는 속성상 약소국은 평화를 보장 받을 수 없으며 한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³⁸⁾ 유경상 역시 이 강연집에 수록된 “正義의 力”을 통해 근세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나 아시아 약소국들을 괴롭히는 미국의 오만한 독선, 독일이 획책한 두 차례 대규모의 전쟁사에 주목하여 약소국들이 당하는 울분을 토로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근절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과업을 짊어졌다고 했다.³⁹⁾ 당시 김창준을 비롯하여 길선주, 유경상 등 평화론과 반전론을 주장한 목회자들은 일제에 저항할 때 일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았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 기독교신자들로서 오직 섭리와 은총을 간구했으며 일제의 총칼에 맞서 무저항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상과 행적을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그리스도의 모범: 무저항주의가 아닌 초저항주의(超抵抗主義)

김창준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평화의 논점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선후(先後)가 맞지 않는, 상호 모순되는 듯한 행위들에 주목했다.

38) 길선주, “平和의 曙,” 한석원 편, 『宗敎界諸名士講演集』(京城: 活文社書店, 1922), 40, 42. Cf. 이규수, “파리강화회의와 신한청년단의 활동: 민족자결주의의 수용과 좌절,”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4(2020), 75-111. 길선주의 “平和의 曙”에 관한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안수강, “길선주의 “平和의 曙”(1922)에 나타난 ‘평화’와 ‘의(義)’ 분석,” 『생명과 말씀』 23/1(2019), 211-212.

39) 유경상, “正義의 力,” 한석원 편, 『宗敎界諸名士講演集』(京城: 活文社書店, 1922), 69-70, 72-73, 76.

첫째, 마태복음 5장(21-26절, 38-48절)에 기록된 형제를 미워하지 말 것, 원수를 사랑할 것, 송사한 자와 화해할 것,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 원망하는 형제와 화목할 것 등을 가르치신 것과 요한복음 2장에 기술된 채찍을 휘둘러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엮으신 성전 정화사역은 상호 모순이 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했다.⁴⁰⁾

둘째, 마태복음 10장(9-14절), 누가복음 22장(35-38절), 마태복음 26장(17-53절) 등에 기록된 기사에 근거하여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주셨지만 검이 없으면 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대목,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책망하신 교훈 등이 상호 모순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⁴¹⁾

셋째, 마태복음 10장(34-39절), 누가복음 12장(51-53절) 등을 통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경우와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을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정황 역시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고 했다.⁴²⁾

이 난제에 대해 임성록, 이상문, 김돈수, 김원경, 김표엽, 김활란, 변성옥, 홍병선, 최용호, 변인화, 김산, 김성률, 김수철 등이 자유토론에 임했으며 예수님은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만사를 수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셨던 분이시라는 점에서 ‘무저항’이라는 용어보다는 ‘초저항’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⁴³⁾ 김창준은 『宗教界諸名士講演集』(1922)에 발표한 설교문 “最大의 模範”에서는 “그 謙遜은 하늘님의 아들이라 하며 世界에서 가장 큰 人格으로써 우르러 보는 예수가 馬廐間에서 나서 馬廐 우에서 잤스며 卑賤한 木手의 生活을

40) 김창준, “基督敎의 無抵抗主義,” 20-21.

41) 위의 글, 21.

42) 위의 글, 21-22.

43) 위의 글, 25.

하다가 三十歲가 되는 해로부터 죽으실 때까지⁴⁴⁾라고 기술하여 그리스도의 겸손, 비하(卑下), 희생에 주목했으며 이러한 성품은 그가 평화를 주장하신 원초적 속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반복기의 “基督敎의 神觀”: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고난에 관한 담론

반복기는 “基督敎의 神觀”을 통해 모든 것의 원인이자 원천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리적 가르침을 기술했다. 1927년 「靑年」 특집호에 게재된 7편의 글들 중 “基督敎의 神觀”은 신학적 논증과 신앙 고백적 소신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저작이기도 하다. 이 글은 제목만 보아서는 신관이 중심논제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바라보는 양면적 논법을 적용했다. 먼저 조직신학적 체제를 갖추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기술했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苦)의 문제에 주목하여 왜 인생사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임하는지 인과율(cause and effect)의 논리를 적용하여 숙고했다.

1) 하나님의 속성 이해

반복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총 3항으로 정리하여 교의적 혹은 교리적 관점에서 진술했다. 그가 기술한 논점들은 교파나 교단을 초월하여 기독교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작성되었다. 다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교단별 민감한 교리 문제는 피했으며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피조세계의 보전, 통치, 지위의 탁월성과 초월성, 내재성 등을 논했다. “萬有를 創造하시고 保全하시며 統轄하시고

44) 김창준, “最大의 模範,”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京城: 活文社書店, 1922), 236-237.

그 우해[위에-연구자 주] 계실 뿐 아니라 萬有에 內在하신 神이심.”⁴⁵⁾

둘째,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내재해계시며 지성, 감정, 의지를 갖추신 고유한 인격체이시라고 했다. “萬有 中에 계신 神은 性格이 업난 어찌한 勢力이 아니라 思考[지성-연구자 주도] 하시고 感情도 계시고 意志대로 行하시난 Personality를 具有하신 神이심.”⁴⁶⁾

셋째, 도덕적 속성으로서 인자하심, 그리고 제한적으로 인자(仁慈)의 성품에 준하여 성부와 성자의 호모우시오스(ὁμοούσιος) 속성 즉 동일본질에 대해서 기술했다. 다만, 성령의 위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神格에 對하여서난 義를 爲하여 行하시난 仁慈하신 神으로서 그 仁慈에 標準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트신[같은]-연구자 주 神이심.”⁴⁷⁾

반복기는 신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신관의 요체는 창조, 죄악, 구원,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랑 등의 핵심적인 용어들을 통해 묘사할 수 있다며 복음적 관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봄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사랑의 속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실존을 총체적으로 대변해주는 구심점이라고 했다. “基督敎의 神觀에 中心은 神은 사람을 創造하시실 뿐만 아니라 罪惡 中에서 救援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當身을 世上에 나타내심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아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 하심을 깨다를 것이라 한다.”⁴⁸⁾

2) ‘고’ (苦)의 문제에 관한 담론

반복기는 비록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괴로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인간이 결코 다양한 질곡에서 자유로

45) 반복기, “基督敎의 神觀,” 26-27.

46) 위의 글, 27.

47) 위의 글.

48) 위의 글, 30.

을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들어 괴로움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승리적 신자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괴로움을 인과율의 논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총 5가지로 논증했다.⁴⁹⁾

첫째, 사리사욕의 문제이다. 괴로움은 자유를 가진 인간이 삶속에서 과오를 범하여 사리사욕을 품음으로써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초래되는 문제일 수 있다고 했다.

둘째, 죄악의 문제이다.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준하여 진행한다는 점에서 고난은 악을 행함으로써 초래되는 자연스런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셋째, 괴로움은 안락(安樂)을 성찰하게 해주는 지식과도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일 인간이 전혀 괴로움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안락의 진가와 진귀한 속성을 인식할 수 없다.

넷째, 자연계를 통해 만나는 각종 재난은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모두 공통적으로 체험하며 이는 인류사회가 피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 했다.

다섯째, 괴로움이 있기에 이를 근간으로 인류가 발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세계에 고난을 부여하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괴로움에 대한 반복기의 강조점은 신중하게 인과율을 적용하여 숙고함으로써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할 것, 피할 수 없는 재난에 직면했을 때는 폭넓게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 것,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세계에 괴로움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 그리고 괴로움을 통해 도리어 진취적 삶을 추구할 것 등을 권고하려는 데 있다.

이렇듯 반복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총 3항에 걸쳐 진술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고(苦)의 문제에 대해

49) 위의 글, 28-29.

서는 별도의 담론으로 다루어 총 5항목에 걸쳐 논증을 개진했다. 특히 신의 속성에 관한 진술은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인간 자신에 관한 정당한 지식을 성찰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인간관까지도 외연하여 숙고할 수 있도록 이론적 단초를 제공해주었다.

III. 실천적 외연(外延)에 관한 담론

1927년 「청년」 하령회 특집호에 수록된 7편의 글들 중 조만식의 “基督教와 實生活”, 양주삼의 “生活方式”, 홍병선의 “農村事業” 등 3편에는 실천적 외연에 관한 담론이 부각되어 있다. 본고 제2장에서 고찰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립해야 할 내면적 신앙’이 내면에서 불타는 ‘내연(內燃)에 해당한다면 본장에서 다루는 ‘실천적 외연(外延)에 관한 담론’은 적극적으로 실천을 지향하는 구도를 갖는다. “본래 ‘내연-외연’의 원리는,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는 신앙은 마음 내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동력을 갖추었기에 그 결과 자연스럽게 외부로 향하여 원심력의 방사가 촉발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⁵⁰⁾

1. 조만식의 “基督教와 實生活”: 근검절약 실천과 경제책 연구의 과제

조만식은 기독교는 근대문명의 중심지인 구주(歐洲) 지역을 융성하게 이끈 일반문화의 뿌리이며 종교개혁, 산업혁명, 문예부흥 등 굵직한 역사의 흐름을 주도한 원동력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기독교는 한국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형성하

50) 안수강, “이기풍(李基豐) 목사의 성화담론 분석-그의 “新造의 人”(1922)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6(2020), 162; 민경배, 『教會와 民族』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117; 민경배, 『歷史와 信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82, 140. 교회사학자 민경배는 자신의 역사관을 전개하는 논지에서 ‘내연(內燃)과 ‘외연(外延)을 유기적인 관계로 결속시켜 ‘내연-외연의 원리’를 구체화했다.

는 견고한 축이 될 수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기독교가 한국에 미친 영향들로서 사람들의 개선된 외양(외모), 의복, 여성들의 사회진출 등 신문물의 개화 현상을 가리켜 ‘무비기독교화(無非基督教化)’라고 했다.

그러나 전래 초기에 한 세대에 걸쳐 큰 파급력을 지녔던 기독교는 1920년대 들어 영향력을 상실했으며 ‘금일의 기독교가 수면(睡眠) 중’이라고 진단했다.⁵¹⁾ 이러한 현상은 1917년 『青春』에 발표된 이광수의 “今日朝鮮耶蘇教會의 欠點”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광수는 당시 한국교회가 구령을 모토로 복음사역에 치우쳐 콘텍스트로서의 사회현장을 등한시하는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여 “현세와 내세의 지평을 분리시키는 양극화 현상, 교역자의 무지, 무속신앙으로의 전락 등”⁵²⁾ 쇠퇴현상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조만식은 기독교가 실생활을 건전하게 교화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복 개량, 근검절약, 경제책 연구와 교육개선 등 경제문제에 주목할 것을 당부했다.

1) 의복 개량과 근검절약 실천

조만식은 당시 전통적 복장이 새롭게 개량되어 서구화되면서 특히 여성복에 변화의 추이가 두드러진다고 했다. 그러나 남성복 개량은 다소 답보 상태이며 특히 회소성의 가치가 있는 양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통 복장보다 훨씬 우대를 받는다고 했다.⁵³⁾ 그는 이 의복문제에 대해 현대화와 개량작업을 고무적으로 평가했지만 한국인들이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부탁했다.

첫째, 여성복 개량이 큰 진전을 보이면서 야기된 난제로 외제 물품을

51) 조만식, “基督教와 實生活,” 6.

52) 이광수, “今日朝鮮耶蘇教會의 欠點,” 76-83. Cf. 이광수,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 『青春』 9(1917), 13-18.

53) 조만식, “基督教와 實生活,” 7.

선호하여 남용하고 국산품 애용에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추후 남성복 분야에도 개량 작업이 활성화되겠지만 여성복 개량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국산품을 애용하여 민족애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女衣는 相當히 改良되야 着服의 便宜로나 美觀으로도 可當한 賞을 노홀만하다. 다만 外國産品을 濫用하는 點에 注意하고 國産品 愛用과 利用에 機敏만 하면 足할 것이다. 此에 反하야 男子의 衣服은 別로 改良이 들 되였다.”⁵⁴⁾

둘째, 의복 개량은 지나친 고급화와 신사화를 지양하여 소박해야 하고 의복 제작 공정이 많은 손길을 거치는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의 衣服이 너무 紳士的임과, 白色임과, 婦人네의 손을 너무 만히 것치게 되는 弊端은 누구나 認定한다.”⁵⁵⁾

셋째, 전통 복장에 비해 지나치게 양복이 우대를 받아 심지어 빛을 내어 외상으로 양복을 구입함으로써 살림살이가 피폐해지는 폐단을 지적했다. “敎師나 牧師가 洋服을 입지 아니하면 그 職務를 履行하기에 不適當하다는 條項이 어내어느 연구자 주 禮文에 紀錄된 바 아니엿마는 外樣上 洋服을 입지 아느면 안되거니 하는 概念的 判斷 (중략) 經濟上의 破滅을 餘地 업시 當하는 우리로서 寸만한 將來라도 憂慮함이 잇다면”⁵⁶⁾

근검절약의 덕목은 전술한 것처럼 의복 개량에 관한 제언을 외연하려 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조만식은 왜 근검절약의 덕목이 필요한지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했다. 하나는 빈곤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첫째, 외화(外華) 즉 화려한 걸치레에 몰입되어 허영에 침륜하고 근검절약하지 못하면 경제가 피폐해지고 가세(家勢)가 기울어 빈곤의 늪에 빠

54) 위의 글.

55) 위의 글.

56) 위의 글, 7-8.

진다고 경고하고 특히 빚과 다를 바 없는 외상 문화의 고질적인 악순환을 척결할 것을 촉구했다. “外華[화려한 치장]·연구자 주에 流入함이 一般의 傾向이다. (중략) 이것이 우리네의 生活이 浮虛에 流入하고 困乏에 빠져드는 研究자 주 張本임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중략) 手中에 돈을 안 가지는 수도 업지 아니하거니와 +錢 内外의 담배 한 갑에도 外上으로 사들기가 너무나 恒茶飯[일상다반]·연구자 주한 것이 우리의 眞正한 生活實面이다.”⁵⁷⁾

둘째, 이러한 폐단은 성장기의 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년들이 희생을 치르는 심정으로 젊은 층과 후세대에 모범을 보여 이타적 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로써 근검절약의 덕목이 전세대와 후세대를 이어주는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가 적어도 靑少年을 위한다던지 우리 民衆을 위한다던지 하는 立場에서는 少年들 同志間에 미치는 影響은 實로 큰 것이니 (중략) 저에게 如何한 影響이 잇슬가 하여 自身의 地位를 捨나고 自我의 慾望을 犧牲하자고 함이다.”⁵⁸⁾

2) 경제책 연구의 과제

조만식은 선교사들이 내한한 이래 복음을 전하여 구령사역에는 공헌했지만 어떤 학생이 지적한대로 “朝鮮宣教師들은 經濟觀念을 우리에게 도모지 너허주지[넣어주지]·연구자 주 안흔 것이 今日 敎會 維持와 發展에 큰 障礙라.”⁵⁹⁾라고 밝힌 글을 인용하여 이들이 경제에 관한 개념을 심어주지 않았기에 한국교회가 경제분야에 안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만식은

57) 위의 글, 8-9.

58) 위의 글, 9.

59) 위의 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한국교회를 경제적 토대 위에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굶고 헐벗은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기초육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의식주이며, 구령사역 또한 경제문제가 전제될 때 용이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1890년 네비우스(John L. Nevius)가 내한하여 선교사들에게 “순회전도, 자립선교, 자립정치, 자립보급, 체계적인 성경연구 등”⁶⁰⁾ 선교원칙들 강론했던 맥락과 궤적을 같이 한다. “三十有餘 年の 歷史를 가진 우리로서는 過去의 經驗을 批判하여 經濟的 土臺 위에 [위에-연구자 주] 教會를 建設 하도록 自進하여 그 方策을 取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보라 배가 출출 골코 헐버슨 사람다려 아모리 眞珠기튼 金言으로 天堂說을 傳播한들 무삼 有益이 잇스리오.”⁶¹⁾

둘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산업방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유용한 인적 자원들로 등용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어야 하며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했다. 이러한 견해는 졸업생들이 산업방면에 진출하여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사회의 경제적 여건이 한결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함축되어 있다. 조만식은 이론과 실생활을 분리할 수 없다는 논점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실업세계에서 고등유민(高等遊民), 또는 청맹(靑盲)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교육 혁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今日의 教育制度는 孤燈遊民을 만드는 場所이다. 實生活 方面에 隔離되는 智的 修養이 大部分임으로 學校를 마치고나서는 實業方面에 어쩔 수 업는 靑盲이다. 내 밋기는 (중략) 예수가 今日 朝鮮에 왔섯던들 『너희는 產業方面에 努力

60) 백낙준, 『韓國改新敎史: 1832-1910』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170; John L. Nevius, *The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Nutley, NJ: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8), 7-92.

61) 조만식, “基督敎와 實生活,” 10.

하라』는 말을 반드시 하엿스리라고 한다.”⁶²⁾

2. 양주삼의 “生活方式”: 의식주 선용의 원리들과 원칙들

양주삼은 인간의 통상적인 삶의 영역과 본질에 대해 광의적 의미로서 정신과 물질 양면을 제시하면서 특별히 협의의 의미에서는 기초욕구에 해당되는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다고 설파했다.⁶³⁾ 교육심리학자 마슬로우(Abraham H. Maslow)는 1943년 자신의 욕구단계설(Maslow's hierarchy of needs theory)을 정립하여 “생리적 욕구(physical needs),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소속의 욕구(belongingness needs), 존중의 욕구(esteem needs),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등”⁶⁴⁾ 다섯 단계로 체계화했다. 다섯 단계는 그 전후(前後) 단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속되어 있어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행되어야만 최종단계인 자아실현에 이르는 구도를 보여준다. 양주삼은 “生活方式”에서 당시 일제 식민치하에서 고난당하는 빈곤한 민족을 염두에 두어 생리적 욕구 즉 기초욕구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이 글에서 의식주 이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3대 원리와 의식주를 선용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원칙들을 제시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1) 의식주 이용에 고려할 3대 원리들

양주삼은 의식주 이용에 고려해야 할 3대 원리로서 경제력, 미관, 편의성을 들었다. 그런데 이 3대 원리는 최우선적으로 각 사람의 경제력이

62) 위의 글.

63) 양주삼, “生活方式,” 15.

64) Abraham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87), 15-23.

고려되어야 하고 이에 준하여 미관과 편의성을 논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사람이 누려야 할 의식주와 관련하여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미관과 편의성 또한 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경제력이 부족한데도 빚을 내어 과분한 의식주를 누리려 한다면 가정경제가 파탄 나고 가세가 기울게 되며 결국 생리적 기초육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自己의 생각대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보다 우리의 生活 形式에 直接 關係인 衣食住를 如何히 할가 함에 二三의 原理를 말하려 한다. 一, 經濟力의 미치는 範圍 內 二, 美觀便으로 三, 便利한 便으로. 가령 自己의 所有한 經濟가 그만큼 上品類를 取하기에 足할가 不足할가를 度衡하여 取하라 함이다. 다시 말하자면 衣食住에 美와 便宜를 取하기 前에 自己의 가진 바 金力을 먼저 標準하라 함이다. 그러치 아니하고 조코종고 연구자 주 便하다 하여 함부르 쓰게 되면 日常生活이 반드시 하로 아침하루 아침 연구자 주에 破裂되는 날에는 그만큼 餘望이 消滅되는 날이다.⁶⁵⁾

이 논증에 이어 “生活方式”을 발표한 양주삼 본인을 비롯하여 유경상, 이상문, 홍병선, 유각경, 채필근, 임상록, 이성눌, 장석인, 이대위, 김산, 김응집, 현동완 등이 자유토론에 임하여 이상적인 생활방식을 위한 ‘의식주 선용의 원칙들’을 도출했고 이를 실생활에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2) 의식주 선용의 원칙들

자유토론에서 한국인들이 의식주를 선용하기 위해 힘써야 할 원칙들이 제시되었다. 이 토론에서는 물질문제가 단지 물질영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정신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정신문제란 개량적 노력, 경제력, 그리고 사치

65) 양주삼, “生活方式,” 15-16.

를 금하는 자세를 가리키며 이 원칙들을 지킬 때 이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한국이 시대적으로 과거의 전통사회와 신문명이 교차하는 혼란스런 과도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각기 다양한 방법론들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 원칙들에 준하여 최선의 재량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다음 인용문은 양주삼의 “生活方式” 마지막 문단에 기술된 전문이다.

結論: 요컨대 生活方法은 物質問題보다 먼저 精神問題이다. 우리는 過渡期에 잇슴을 免할 수 업슴이 事實이니까 어서한 一定한 方法을 세워 그 한 길로만의 準行을 지을 수 업다. 各自의 不絶한 改良의 努力과 經濟力을 絶대로 標準하는 아래에서 物色을 取하고 斷遠함취하거나 끊어 멀리함-연구자 주이 今日에 잇서서는 無上의 生活方式일 것이다. 이에서 우리의 進路가 스사로 열날 것이다.⁶⁶⁾

양주삼의 글 “生活方式”은 앞서 조만식이 “基督教와 實生活”에서 다룬 의복 개량, 근검절약, 경제책 연구와 교육개선 등 경제문제에 주목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들이 다룬 세분화된 하위 주제들은 다양성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한결같이 경제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당시 일제 식민치하에서 빈곤에 처해있던 한국인들의 황폐한 삶을 염두에 두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계몽하려는 취지를 반영했으며 각별히 실생활에서 검소한 삶을 살 것을 독려하기 위해 경제운영에 관한 주제를 비중 있게 다루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66) 위의 글, 19.

3. 홍병선의 “農村事業”: 농민들의 신용문제

홍병선은 “農村事業”에서 분야별 삶의 영역 가운데 앞서 발표된 글들과는 주제를 달리하여 농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했다. 그는 왜 농촌이 피폐해지는가? 왜 발전이 없는가?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며 그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농촌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서 농민들이 ‘신용’을 상실한 정황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를 큰 틀에서 조명한다면 농민 계몽운동으로 볼 수 있으며, 협의적 의미로는 ‘신용 회복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한국교회가 농민계몽운동에 힘써야 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농민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그는 이 글에서 ‘농민들의 신용 상실-농촌의 피폐’라는 도식을 구축하여 신용 상실을 원인으로, 농촌피폐상을 그 결과로 진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과 아울러 이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몇 가지로 제시하여 농촌사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소망했다.

1) 농민들의 신용 상실-농촌의 피폐

홍병선은 농촌의 피폐라는 절박한 난제가 농민들이 신용을 상실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다. 당시 금융조합기관이 융통성 있게 농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사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지만 농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금융기관에 엄청난 손해를 주는 사례들이 속출한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이 대출금을 농사일에 활용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소진하거나 일확천금을 노려 도박으로 탕진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바람에 금융기관과 농민 양자가 공멸에 이르는 악순환이 지속

되고 있다는 것이다.

農村事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必要한 것은 信用問題이다. 信用 업는 까닭에 무삼 일을 計劃하기도 어렵고 무삼 일을 맞길 수도 없다. 疲弊한 農村에 아모리 돈을 담아 붓는다 하여도 도로혀 糶 밧기 쉬운 것이다. 農村 어떤 슬기롭은 말을 들은즉 金融組合機關이 信用 업는 農民들에게 破産키 쉬운 그물이 되었다 한다. 이는 그 農民 自身들이 金融을 融通할 만한 資格 즉 信用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략) 勤實한 德行이 업시 空中에 바람 잡는 一攫千金할 어리석은 慾心에 노름판을 일삼는 데서 敗亡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밧 안지게 하는 方法이 무엇이며 疲弊하여지는 農村의 復活運動이 實로 어대 잇는고?⁶⁷⁾

그는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멸망의 수모를 당했던 것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용, 즉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초한 인과응보의 참상이었다는 점을 들어 같은 원리를 농촌문제에 적용하여 숙고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질적인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홍병선은 농촌문제만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유용한 해결책들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제기와 해결책을 한 지평 위에 구축했다.

2) 농촌 신용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들

홍병선은 농촌 신용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들로서 농촌 문맹퇴치, 노동조합 결성, 농한기를 활용한 부업, 농지 구입과 경작, 금주 동맹, 토산품 애용 등 여섯 가지의 실천사항을 행동강령으로 내세웠다. 그는 문맹퇴치와 아울러 유재한 씨의 체험적 고백을 단초로 시의성 있는 해결책들을 정선하여 여섯 가지로 제시했다.⁶⁸⁾

67) 홍병선, “農村事業,” 31-32.

첫째, 농촌문맹 퇴치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홍병선은 농촌 사람들이 진학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문맹퇴치 사업을 실천하여 글자를 깨우치게 하고 글을 가르침으로써 내면을 다스리는 혜안(慧眼)을 열어줄 수 있다고 했다.

둘째,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을 촉구했다. 비록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별반 관심을 갖지 않지만 꾸준히 설득하고 장려하면 점차 구성원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셋째, 농한기에 휴식만 취할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흔히 농한기에 할 일이 없이 무위도식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새끼 꼬는 기계를 장만하여 부업을 실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넷째, 노동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경작함으로써 소득뿐 아니라 부채를 갚고 일부 농지는 소작인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빈곤을 탈피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다섯째, 노동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금주운동을 전개하면 이 운동이 확산되어 주점들은 점차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며 잡기(雜技)까지 일소하여 사회적으로 건강한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⁶⁹⁾

여섯째, 우리 농토에서 수확하는 토산품들을 애용할수록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토산품 거래와 유통은 농촌의 만성적인 난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68) 위의 글, 32-34.

69) 김진홍은 1934년 「계자씨」에 수록된 “行實은 各人の 心像을 보이는 거울”에서 ‘예기(藝妓), ‘창기, ‘주부(酒婦), ‘여급(女給), ‘요리옥, ‘예기치옥(藝妓置屋), ‘창루옥(娼樓屋), ‘주점, ‘카페 및 ㅼ’ 등에 몸담은 여성이 12,068명이라고 했다. 김진홍, “行實은 各人の 心像을 보이는 거울,” 「계자씨」 3/10(1934), 7.

홍병선은 1921년에 발행된 『百牧講演』에 “新時代의 要求”라는 설교문을 발표하여 사람이 내면에 구비해야 할 참 인격은 ‘양심’이라고 했으며, 참 인격은 양심을 개량하는 것이고, 양심을 개량함으로써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金錢도 잊어야 ㅎ겝고 智識도 잊어야 ㅎ겝고 權利도 잊어야 ㅎ겝지마는 몬져 사름되는 人格을 이루지 못하면 卽 다시 말하면 良心을 바로 ګ치지 못하면 其人 其社會에 金錢이 잇스면 金錢이 잇슴으로 말매암아 滅亡의 날을 催促 ㅎ거시오, 其人 其社會에 智識과 權利가 잇스면 그 知識 權利로 말매암아 人類社會를 害毒케 ㅎ이 日노 尤甚[우심: 심해짐-연구자 주]ㅎ게 되겠슴니다. 그러면 몬져 義를 行ㅎ는 人格이 잇는 者가 되어야 ㅎ겝슴니다.⁷⁰⁾

홍병선이 “農村事業”에서 논한 신용문제는 비단 농촌문제로 국한된 주제만은 아니었다. 신용문제는 농촌지역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범민족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할 필연적 윤리문제이기도 했다. 그는 늘 인간세계에서 고질적인 난제로 제기되는 신용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어줌으로써 당시 한국인들이 양심 문제를 깊이 성찰하여 건전한 도덕성과 윤리관을 함양하기를 기대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윤치호가 ‘意志의 德 卽 信用의 人’⁷¹⁾을 주장하여 우리 민족이 의지의 고귀한 덕목인 신용을 갖추는 인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던 것도 홍병선이 지적한 신용문제와 같은 맥락선상에 있다. 물론 홍병선은 식민지 경제의 착취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단계까지 의견을 진술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농촌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근검절약의 도덕성을 넘어서서 제도적 관점을 도입하여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70) 홍병선, “新時代의 要求,” 양익환 편, 『百牧講演』(京城: 博文書館, 1921), 22.

71) 윤치호, “宗教와 民族性,” 5.

IV. 나가는 말: 기독교윤리적 함의

지금까지 1927년 9월호 「青年」에 수록된 7편의 하령회 원고들을 분석하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립해야 할 내면적 신앙과 실천적 외연(外延)에 관한 담론’을 살폈다. 이 글들에 담긴 주요 내용과 윤리적 의미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립해야 할 내면적 신앙은 윤치호의 “宗教와 民族性”, 변영서의 “現代青年의 覺悟”, 김창준의 “基督教의 無抵抗主義”, 반복기의 “基督教의 神觀” 등 4편에 심층 진술되었다. 윤치호는 기독교와 민족성 양자의 관계에서 기독교가 민족성을 강화해주는 동인이 될 수 있으며 한민족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해 의지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변영서는 청년들의 각오를 촉구하여 ‘유물주의와 정신운동의 싸움’, ‘영웅의 시기를 맞은 한국청년들’,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는 청년일꾼들’을 논증하여 신세계를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준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의 민족성을 논한 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초저항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반복기는 하나님의 속성들로 창조사역과 보전, 통치, 탁월성과 초월성, 내재성, 인격성, 도덕적 형상 등을 논증했으며 ‘고(苦)에 관한 담론’에서는 회개, 고난의 수용, 고난의 편만성, 진취적 삶 등에 대해 논했다.

둘째, 실천적 외연(外延)에 관한 담론은 조만식의 “基督教와 實生活”, 양주삼의 “生活方式”, 홍병선의 “農村事業” 등 3편에 부각되어 있다. 조만식은 기독교가 실생활을 건전하게 교화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의복 개량, 근검절약, 경제책 연구와 교육개선 등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논지를 전개했다. 양주삼은 의식주 이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3대 원리와 의식주를 선용하기 위한 원칙들을 제시했다. 의식주 이용에

고려할 3대 원리로서 경제력, 미관, 편의성을 들었으며 의식주 선용의 원칙들로서 개량적 노력, 경제력, 그리고 사치를 금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흥병선은 농민들의 신용상실과 농촌의 피폐상을 인과율로 간파하여 농민들이 속히 신용을 회복하여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을 것을 촉구했으며 농촌 신용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들로서 문맹퇴치, 노동조합 결성, 농간기를 활용한 부업, 농지 구입과 경작, 금주 동맹, 토산품 애용 등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했다.

셋째, 본고는 YMCA 기관지 「靑年」의 특집호에 실린 내용에 준하여 고찰할 한계점이 있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라는 피압박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공동체 훈련에 충실했다는 점을 하령회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의미를 탐색할 수 있었다. 공동체생활은 기독교 전통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더불어 삶을 나누며 집단의 지성을 공유하는 전통적 신앙 훈련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하령회를 개최했던 것은 한국기독교가 일제의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빈곤 등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고통스런 실상을 극복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측면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하령회에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감성적 열광주의나 신비주의 등 내면의 정화(淨化)에 치중했던 부흥집회의 성격을 뛰어넘어 신앙의 이론적 측면과 현실을 바라보는 실천적 삶의 측면을 한 지평 위에 통합했다는 점에서 하령회 행사는 청년들의 성숙한 신앙 훈련을 모색했던 의미심장한 교육의 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하령회에서 강사들이 시행한 교육과 담론들은 윤리 사상적인 측면에서 한계성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정치, 사회적인 배경 등 여러 면에서 일제가 문화정치 체제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압박을 가한 강점기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靑年」 특집호에

드러난 기독교윤리에 관한 논점들은 사회와 문화의 구조적, 그리고 제도적 개혁까지 충분히 논의되지는 못했고 대체로 개인의 윤리적 진보와 신앙적 성화에 머무는 한계성을 보여준다. 물론 하령회 현장에서 강사들이 직접 구두로 전달했던 내용과는 달리, 제한된 지면에 성문화하여 담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약 혹은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섯째, 기독교는 역사적 태동기부터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기반으로 뿌리를 내렸고 1920년대로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질곡 현장에서 공동체생활과 신앙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앙의 진보와 시민의식 함양에 공헌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YMCA와 YWCA가 1927년 연합으로 개최한 제1회 하령회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러한 대회는 한국교회의 수련회와 수양회 전통에 큰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나 현재나 기독교가 미래지향적 발전을 모색하려면 지적 활동과 감성적 활동을 통일성 있게 추구해야 하는데 해방 전 하령회는 영성 진작을 위한 신앙집회의 성격과 실천적 삶을 일원화한 주목할 만한 행사였다. 특별히 「青年」 특집호에 게재된 하령회의 메시지에는 신앙이론과 실천적 삶을 통합하려는 열정이 담겨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교세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영적 유산으로 전해오는 하령회의 메시지를 숙고하여 이러한 행사들을 시의성 있게 재현함으로써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각성운동이 청년세계에 확산되도록 각교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참고문헌

- 길선주. “平和의曙.”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28-42.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 _____. “한국교회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와의 관계: 1920~30년대의 공산주의 교회 박해를 중심으로.” 『교회와 신학』 27(1995), 69-93.
- 김진홍. “行實은 各人の 心像을 보이는 거울.” 『계사씨』 3/10(1934), 5-7.
- 김창준. “基督敎의 無抵抗主義.” 『靑年』 7/7(1927), 20-25.
- 김창준. “最大의 模範.”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230-242.
- 김홍수. “김창준의 생애와 신학.”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사회주의』.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2, 211-213.
- 김필수. “『靑年』 發行의 首辭.” 『靑年』 창간호(1921), 1.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_____. 『歷史와 信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 _____. 『韓國基督敎 社會運動史』.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_____. 『敎會와 民族』.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박형룡. “無神論의 活動과 基督敎의 對策.” 『神學指南』 12/3(1930), 12-18.
- _____. “次代에 宗敎는 消滅될가?” 『神學指南』 10/3(1928), 5.
- 반복기. “基督敎의 神觀.” 『靑年』 7/7(1927), 26-30.
- 백낙준. 『韓國改新敎史: 1832-1910』.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 변영서. “現代靑年의 覺悟.” 『靑年』 7/7(1927), 11-14.
- 안수강. “일제강점기 YMCA의 노선과 현재적 함의 고찰: 기관지 『靑年』(1921-1940)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9(2022), 631-667.
- _____. “이기풍(李基豐) 목사의 성화담론 분석-그의 “新造의 人”(1922)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6(2020), 147-178.
- _____. “길선주의 “平和의曙”(1922)에 나타난 ‘평화’와 ‘의(義) 분석.’ 『생명과 말씀』 23/1(2019), 197-228.

- _____. “해방 이전과 현 YMCA의 기독교 활동 비교.” 『역사신학논총』 30(2017), 144-180.
- 양주삼. “生活方式.” 『青年』 7/7(1927), 15-19.
- 유경상. “正義의 力.”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66-76.
- 윤치호. “宗教와 民族性.” 『青年』 7/7(1927), 2-5
- _____. “基督은 誰也뇨.” 양익환 편. 『百牧講演』. 京城: 博文書館, 1921, 162-165.
- 이광수. “今日朝鮮耶蘇教會의 欠點.” 『青春』 11(1917), 76-83.
- _____.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 『青春』 9(1917), 13-18.
- 이규수. “파리강화회의와 신한청년단의 활동: 민족자결주의의 수용과 좌절.” 『한국 기독교문화연구』 14(2020), 75-111.
-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 이성일. 『일제하 한국기독교내의 사회운동연구: 1920-30년대 YMCA, YWCA, 절제 운동을 중심으로』.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1993.
- 이장형, 안수강. “「青年」(1921-1940)에 나타난 반전(反戰)-평화비상시국 담론 및 기독교윤리적 해석.” 『기독교사회윤리』 59(2024), 399-428.
- _____. “「青年」(1921-1940)에 나타난 여성관과 기독교윤리적 의미.” 『기독교사회윤리』 57(2023), 421-450.
- 一記者. “權頭語.” 『青年』 7/7(1927), 1.
- 장규식. “1920~30년대 YMCA 학생운동의 전개와 일상 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27(2007), 71-105.
-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 운동사』. 서울: 흥성사, 2017.
- 정영희. “인격교육의 향성모형.” 『인격교육』 8/3(2014), 9-24.
- 조만식. “基督教와 實生活.” 『青年』 7/7(1927), 6-10.
- 키노시타 타카오. “한국 YMCA와 105인 사건-윤치호와 1911년 제2회 학생 하령회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9(2009), 180-212.
- 호리고메 요조. 歴史をみる 眼. 박시중 역. 『역사를 보는 눈』. 서울: 개마고원, 2008.
- 홍병선. “農村事業.” 『青年』 7/7(1927), 31-34.
- _____. “新時代의 要求.” 양익환 편. 『百牧講演』. 京城: 博文書館, 1921, 20-26.

Maslow, Abraham H.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87.

Nevius, John L. *The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Nutley, NJ: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8.

논문투고일: 2025년 11월 07일

심사개시일: 2025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16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1927년 8월 YMCA와 YWCA가 연합으로 개최한 하령회(夏令會)에서 발표된 메시지들을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윤리적 의미를 제시한다. 첫째, 특집 내용만을 다룬 한계점이 있지만, 일제강점기라는 독특한 시대적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공동체 훈련을 성실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하령회에서 강사들이 강론한 논지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배경 등 여러 면에서 일제의 압박이 가중되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青年」에 기술된 기독교윤리적 관점은 사회와 문화의 구조적, 제도적 개혁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개인의 윤리적 진보와 신앙적 성화에 머무는 한계성을 보여준다. 셋째, 기독교는 전래 초기단계부터 신앙공동체라는 교회조직을 기반으로 뿌리를 내렸다. 이러한 성향이 1920년대로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문화정치 시기의 피압박 상황에서도 한국기독교가 공동체 생활과 훈련을 중시하여 꾸준히 하령회와 같은 행사들을 개최했으며 신앙훈련과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주제어: 「青年」, 하령회(夏令會), 기독교윤리, 내면적 신앙, 실천적 삶
